

“지역에도 좋은 일자리 많네요”...4천명 몰려 성황

현대·기아차 협력사 광주 채용박람회 가보니

“근로와 급여조건이 만족스러운 기업이 많아요. 어디에 원서를 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 행사장은 취업준비생과 졸업생, 이직을 노리는 직장인 등 4000여명의 구직자들로 오전부터 붐볐다.

취업준비생 정모(26)씨는 “호원, 대유에이텍 등 지역에서 잘 알려진 기업의 생산직에 지원하기 위해 왔다”며 “여러 번 취업에 고배를 마신 만큼 이번엔 꼭 취업에 성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회계직에 근무한다는 유모(27·여)씨는 “급여조건이 좋은 업체가 많아 이직을 염두에 두고 행사장을 찾았다”며 “경력 사무직을 채용하는 업체마다 인터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권 30개 업체를 포함, 46개 협력사가 참여한 이날 채용박람회는 중소 협력사들에게 현대·기아차 협력사라는 인지도를 활용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구직자에게는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

호남권 등 46개업체 참가
취업준비생·고교생 붐벼

호원·대유에이텍 등
연봉 2400~3000만원
인지도 높은 기업 인기

회를 제공하는 채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현대차 전주공장 등을 기반으로 한 호남권 협력업체의 부스는 실 세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로 바빴다. 특히 호원과 대유에이텍, 현성오토텍 등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은 꾸준히 4~5명씩 대기인원이 밀렸다. 이날 참여 협력사들의 급여는 2100만~3500만원 수준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2400만~3000만원의 연봉을 제시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나중에 취업 설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행사장을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같다”고 말했다. 졸업을 앞둔 고교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이들은 당장 취업보다는 면접 방법과 이미지 컨설팅 등에 관심이 더 많았다.

나주공고 3학년 박모군은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경험을 쌓으면 취업 시기에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

했다. 진도실고 3학년 김모군도 “자동차를 전공해, 참여 업체에 관심이 많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면접 팁 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상담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협력사들은 현대·기아차 1차 벤더(협력사)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통해 호남권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참석하게 됐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의 협력사라는 인지도가 우수한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옥테크, 몽골 태양광 견본주택 개관 울란바토르 주민도시에...10만 가구 사업 시작

광주의 고효율 모터 및 신소재에 너지 전문업체인 신옥테크(대표 박인철)가 8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주민도시에 태양광 발전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사진>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태양광 발전 10만 가구 사업에 들어간 신옥테크는 풍력사업 부문에서도 몽골 측과 의견을 교환, 더 큰 성과를 거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개척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신옥테크는 지난 3월 몽골 투브아이막 도지사인 도르치와 300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마이크로 USB형 광전 케이블 한국광기술원 세계 최초 개발

차세대 마이크로 USB 케이블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 제품이 우리 기술로 개발됐다.

한국광기술원 나노광전연구센터 연구팀은 차세대 스마트 전자기간 고속 데이터 전송시 발생하는 신호 간섭과 왜곡 현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초소형 마이크로 USB형 하이브리드 광전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원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광케이블 전문기업인 포미(대표 허상후)와 공동개발한 이 케이블은 기존의 전기 USB 케이블 제품보다 전송속도는 2.5배, 전송 길이는 5배 이상으로 각각 향상시켰다. 지름 0.8mm의 초소형 세라믹 페룰(ferrule, 내열도관)에 광섬유를 장착, 마이크로 USB 광전 커넥터에 각각 체결되는 방식인 이 케이블은 접속부 두께가 2mm에 불과해 미국 인텔과 일본 소니 광전 케이블 제품의 4.2mm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입출력 데이터 전송속도가 USB 2.0의 0.5Gbps에서 USB 3.0의 5Gbps로 10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이번 광기술원



8일 한국광기술원 나노광전연구센터 관계자가 ‘마이크로 USB형 하이브리드 광전 케이블’을 시연하고 있다. <한국광기술원 제공>

이 개발한 초소형 마이크로 USB형 하이브리드 광전 케이블은 차세대 전자기간의 신호 연결 매체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황성환 나노광전연구센터 박사는 “초고속 및 대용량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맞아 향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슬림형 컨슈머 전자기기(Consumer Electronic)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 취업자 1년만에 4만1000명 증가

3월 72만7000명...증가율 6%, 전국 평균 2배 이상

광주시의 취업자 수가 1년 동안 4만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취업자 수는 72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4만1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은 6%를 기록, 전국 평균 2.6%보다 높았다. 고용률도 58.1%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1만2000명, 도소매·음식숙박업 8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000명, 건설업 5000명, 농·임·어업 5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 4000명이 증가했다. 상용임금근로자는 3만1000명,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만5000명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취업자는 2516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4만9000명 증가했다. 올 들어 70

만~80만명대로 경종 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60만명대로 둔화된 것이다. 그러나 1~2월의 설 명절과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진 영향이 커 고용시장 회복의 훈풍은 여전히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73만명으로 2002년 1분기(88만3000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의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 30대(-2만4000명)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6만9000명 늘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구직자가 늘면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함께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다. 3월 실업자는 모두 102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4만1000명(16.0%)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産 삼성 냉장고 ‘셰프 컬렉션’

출시 한달만에 1000대 판매 돌풍



9일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모델이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 컬렉션’의 1000대 판매 돌파를 기념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 컬렉션’이 출시 한 달 만에 국내 판매 1000대를 돌파했다.

출시가격이 최고 739만원에 이를 만큼 고가이지만 ‘셰프의 감성과 비법’이 담긴 프리미엄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이 냉장고는 실제 구매 고객의 호평이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량이 가파르게 뛰어 올랐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michelinguide)의 3스타 셰프들과 공동 기획·개발된 셰프 컬렉션 냉장고는 혁신적인 냉장 기술과 수납 공간을 갖춰 재료의 맛과 향, 질감까지 살려주는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이다.

특히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정온을 유지시켜 재료의 신선함을 극대화하는 ‘셰프 모드’와 고기와 생선의 전문 보관실인 ‘셰프 캔트리’, 세계 최대 1000ℓ 대용량 등을 갖춰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에 걸맞은 기능을 제공한다. /임동률기자 exian@

| | | | |
|----------------------------|---------------------------|-------------------------------|--------------------------------|
| ▲ 코스피지수 1998.85 (+5.92) | ▼ 코스닥지수 552.22 (-1.85) | ▼ 금리(국고채 3년) 2.86% (-0.02) | ▼ 원·달러 환율 1041.40원 (-10.80) |
|----------------------------|---------------------------|-------------------------------|--------------------------------|

2014년 광투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

2014. 4. 20일(주일) 오후 3시

광주시청 문화광장 (상무지구)

김유수 목사
(대회장)

남종성 목사
(준비위원장)

임석명 목사
(설교)

1. 오후3시 정각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2. 주차는 시청 주차장과 주변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3. 부활절 연합예배시 드려진 헌금은 광주복음화를 위해 쓰여집니다

·주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주관 : 2014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